

공동체 소식



**주님수난성지주일**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구세주께서 스스로 자신을 낮추시어 사람이 되시고,  
십자가의 형벌을 받으셨으니,  
저희도 주님의 인내를 본받아 부활의 영광을 누리게 하소서

3월 기도지향

- + 구역모임의 활성화를 위하여
- + 냉담가정을 위하여

오늘 '해외파견 한국선교사' 및 '북미주 한인사목 사제협의회' 후원을 위한 '2차헌금'이 있습니다.  
- 일시: 3/20(주일) 교중미사 중.

부활 대축일 맞이 본당 대청소

- 일시: 오늘 교중미사 후

성주간 전례 안내

- 3/22(화): 오전 11:00, 교구 성유축성미사 (본당 저녁미사 없음)
- 3/24(목): 저녁 8:00, 주님 만찬 성목요일 (미사, 발씻는 예절, 미사후 성체조배) ※ 성체조배시간표를 참조바랍니다.
- 3/25(금): 오전 10:00, 십자가의 길 기도, 저녁 8:00, 주님 수난 성금요일 예절 (십자가 경배)
- 3/26(토): 저녁 8:00, 예수 부활 대축일 성야 (빛의 예식, 미사)
- 3/27(일): 오전 11:00, 예수 부활 대축일

성주간 전례회의 및 전례연습

- 일시: 3/20(주일) 공동체식사 후.

부활계란 판매

- 내용: 본당 교육부 주관으로 부활계란을 판매할 예정입니다.

부활 대축일 전례꽃 봉헌 안내

- 내용: 전례부를 통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씻는 예절' 참가자 명단

- 대상 : 감영진, 김정원, 김태중, 김호원, 문석찬, 박정자, 이우석, 임창주, 정연숙, 차호섭, 한봉경, 홍순익.

전례 성가

일시	시작	예물	성체	파견
3/20	10	216	166	119
3/24	116	122	163	-
3/25	-	122	163	-
3/26	-	134	165	130

주일미사 복사

	시중 복사	향 복사
이번주일	문호진 안토니오	정병훈 보니파시오
	정예찬 미카엘	김준영 요셉
다음주일	복사단 전체	

전례 봉사자 및 독서자

	해설자	제1독서
		제2독서
금주	김주연 세실리아	문석찬 요셉 백문주 엘리사벳
차주	박혜정 카타리나	홍순익 마르티노 최은미 아네스

애찬 봉사자

금주	김명은, 한춘희, 안복선
차주	새로 편성된 애찬조

헌금 봉사자

금주	정수한 베드로, 김대성 사도요한
차주	문문주 엘리사벳, 고영방 스테파노

우리들의 정성

하느님께 드리는 헌금과 교무금에 정성을 다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성체	헌금	교무금
3/13	67명	277불	1390불
김화년, 정연숙, 김정원, 이우석, 차호섭, 김호원, 정수한 (총 7세대)			

미사시간  
주 일: 11:00 AM  
화요일: 7:30 PM  
목요일: 10:00 AM  
고해성사  
매 미사 30분전  
예비자교리  
주일 10:00 A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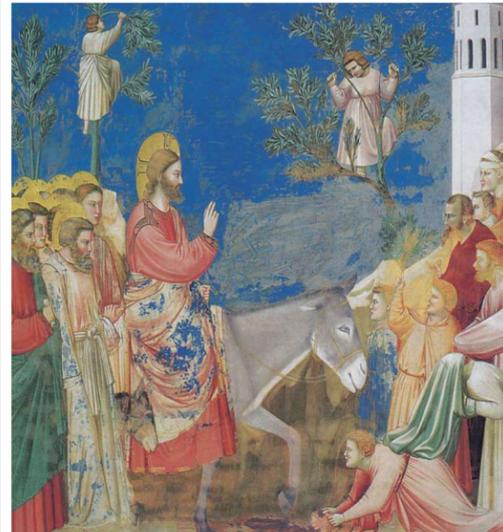
# 천주교 캔사스 한인성당

## Korean Catholic Community of Kansas

9130 Pflumm Rd. Lenexa, KS 66215  
(913)563-7896 www.kckcatholic.org

주보 편집 : 김대연 요셉 812.272.4770 moss0106@gmail.com

주임신부 홍진 베드로  
M: 913.912.2574 hongjhin@daum.net  
회장 홍순익 마르티노  
M: 913.486.4204  
부회장 김태중 예레미아  
M: 913.963.7521  
재무 차호섭 요셉  
M: 614.598.7908 hscha72@gmail.com



### 오늘의 전례

오늘은 주님 수난 성지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파스카 신비를 완성하시려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수난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다가 영광스럽게 부활하신 주님을 따라, 우리도 죽음에서 부활로 건너가는 파스카의 신비에 동참합시다.

### 성화해설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 (지오토 디 본도네, 1302~1305년, 프레스코화 파두아 스크로베니성당 소장)**

군중들은 자신들의 겹옷을 벗어 예수님이 지나시는 길에 깔고, 올리브 나무 가지를 꺾어 손에 들고 '호산나! 호산나!'를 외치며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환영한다. 제자들도 무리지어 예수님의 뒤를 따른다. 지오토는 장엄함과 역동적인 표현으로 그날의 광경을 묘사하였다. 주님 수난 성지 주일은 수난과 죽음을 넘어 부활하실 그리스도의 승리를 기뻐함과 동시에 새로운 예루살렘인 교회의 왕으로 오시는 것을 기념한다.

- 지영현 시몬 신부

제 1 독서 :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50,4-7

<나는 모욕을 받지 않으려고 내 얼굴을 가리지도 않았다. 나는 부끄러운 일을 당하지 않을 것임을 안다 ( '주님의 종' 의 셋째 노래).>



- ◎ 하느님, 저의 하느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나이까?
- 보는 사람마다 저를 비웃어 대고, 입술을 비죽거리며 머리를 내젓나이다. “주님께 의탁했으니 구하시겠지. 그분 마음에 드니 구해 내시겠지.” ◎
- 개들이 저를 에워싸고, 악당의 무리가 둘러싸, 제 손발을 묶었나이다. 제 뼈는 마디마디 썰 수 있게 되었나이다. ◎
- 제 옷을 저희끼리 나눠 가지고, 제 속옷 놓고는 제비를 뽑나이다. 주님, 멀리 떠나 계시지 마소서. 저의 힘이신 주님, 어서 저를 도우소서. ◎
- 저는 당신 이름을 형제들에게 전하고, 모임 한가운데에서 당신을 찬양하오리다.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야곱의 모든 후손들아, 주님께 영광 드러라. 이스라엘의 모든 후손들아, 주님을 두려워하여라. ◎

제 2 독서 : 사도 바오로의 필리피서 말씀입니다. 2,6-11

<그리스도께서는 당신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느님께서도 그분을 드높이 올리셨습니다.>

복음환호송 : ◎ 그리스도님,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

-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죽음에 이르기까지, 십자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하셨네. 하느님은 그분을 드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네.

복음 : 루카가 전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수난기입니다. 22,14—23,56<또는 23,1-49>.



# 쉐 마

## 십자가 위에 우리 구원이...



예루살렘에 머물 때 종종 겐세마니를 들르곤 했습니다. 지금도 큰 덩치의 오래된 올리브 나무들이 정원을 채우고 있는데 올리브 나무가 대략 1000년 정도까지는 산다고 하니 이 나무들 부모님 대쯤 예수님이 고뇌하며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지 않았나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도 해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왜 올리브 산을 넘어 베타니아로 도망가지 않으셨을까?’

겐세마니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위치한 베타니아는 예수님이 사랑하던 마리아, 마르타, 라자로가 살던 곳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뒤 베타니아에 머물며 예루살렘을 오갔던 것으로 보는데, 그날 밤에도 베타니아까지만 물러나셨어도 큰 문제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아버지께서 원하신다면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라는 예수님의 기도가 마치 베타니아로 물러갈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는 말씀처럼 들리곤 합니다.

우리의 인간적 모습과 달리 예수님께서서는 유혹을 이겨내시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십자가를 선택하십니다. 제자들은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일찌감치 예수님을 배반했고,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이 체포되시는 장면에서 도망치고 맙니다. 예수님께서 아무 죄도 없으셨지만 구약의 예언에 따라 다른 이들의 죄를 대신 지고 돌아가셔야 할 어린양이었던음을 깨달은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직 죄수 한 사람만이 예수님이 무죄하신 분임을 고백하며 구원을 청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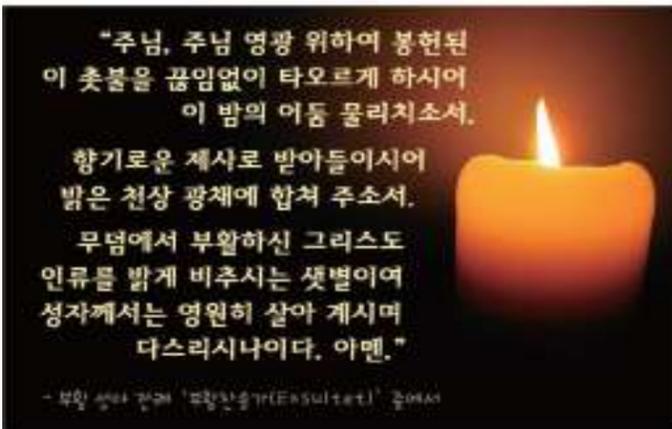
십자가에서 죽는 이에게서 하느님의 모습, 구원자의 모습을 본다는 것은 매우 어리석어 보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은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외면했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무죄하심을 고백한 죄수도 인간적인 눈, 이성적인 판단으로 고백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 고백했을 것입니다.

바로 사도는 성령의 이끄심 없이는 그 누구도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이 하느님의 아들이시며, 그분에게서 우리의 구원이 나온다고 고백할 수 없음을 밝힙니다 (1코린 12,3).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죽기 직전 예수님께 구원을 청한 죄수는 정말로 복된 인물입니다.

루카 복음사가는 이 죄수 이야기를 통해 수난기를 읽는 우리도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에게서 구원이 온다는 것을 받아들이라고 권합니다. 아무리 우리 죄가 크다 해도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면 예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하느님 나라, 곧 낙원에 데려가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성주간을 시작하는 지금 주님의 수난기를 묵상하며 십자가 위에 매달리신 예수님이야말로 우리 주님이심을 더욱 굳건하게 믿고 고백할 수 있는 은총을 청합니다. 유다나 다른 제자들처럼 배반하거나 도망치지 않고 오히려 그 죄수처럼 주님께 구원해 주십사 매달리는 겸손한 용기를 청합니다. 십자가 위에 우리 구원이 달려 있음을 기억하며, 올해도 부활절을 잘 준비합니다. 이렇게 매년 성주간을 충실히 지내며 살아가다 보면, 죄인인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각자가 지고 있는 삶의 십자가 위에서 죽음을 맞은 뒤 그분과 함께 낙원에 들어가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 엄철호 신부 (부산가톨릭대학교 성서신학 교수)



# 주춧돌

## 신앙과 학문의 인물, 아폴로

에페소에는 아폴로라는 유대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알렉산드리아 출신으로 구약성경에 정통하고 설득력 있는 웅변가였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폴로는 완벽한 자질을 갖춘 사목자였습니다. 에페소에 오게 된 아퀼라 부부가 마침 그곳에서 아폴로의 설교를 듣게 되었습니다. 아폴로가 학식이 많고, 성경에 정통한 것에는 호감이 갔으나 그의 설교에는 무언가 부족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요?

### 성경을 찾아 읽어 보세요! 사도 18,1-25

아폴로는 십자가의 복음과 성령의 세례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아퀼라 부부는 아폴로를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아퀼라 부부가 “저희는 당신의 설교를 열심히 경청하고 있습니다. 늘 많은 걸 배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충고해도 되겠습니까?”라고 하자 아폴로는 “그럼요, 얼마든지 좋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대답합니다. 아퀼라 부부는 아폴로에게 무엇을 알려주었을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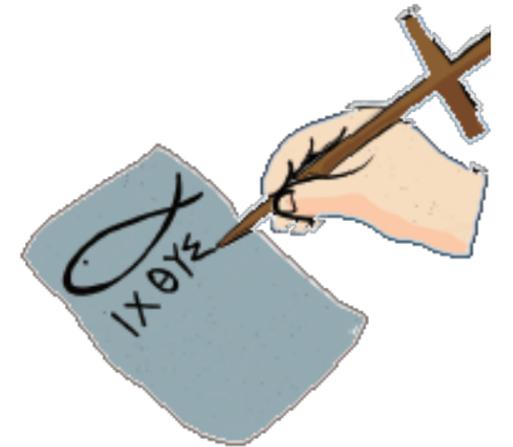
### 성경을 찾아 읽어 보세요! 사도 18,26-28

아폴로는 마음으로 다른 이의 말을 경청하고 받아들였습니다. 비로소 아폴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관해 배워 신앙에 있어 성숙함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아폴로는 보기 드문 학자이면서 아퀼라 부부에게 하느님의 길을 배우는 겸손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아폴로는 미처 깨닫지 못했던 성령의

세례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아폴로가 코린토에 있는 동안 사도 바오로는 어디에서 선교를 했나요?

### 성경을 찾아 읽어 보세요! 사도 19,1-20

코린토 교회 안에서 아폴로의 영향력은 대단했습니다. 아폴로의 설교는 풍부한 성경의 지식을 바탕으로 이루어 졌기 때문에 인기가 많았습니다. 아폴로를 내세워 하나의 파당을 만들 정도로 그의 영향력은 매우 컸습니다. 당시의코린토 교회에는 베드로파, 바오로파, 아폴로파, 그리스도파 등의 당파가 난립하여 서로 분쟁이 심했습니다. 자칫 교회가 분열될 소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오로는 “나는 심었고, 아폴로는 물을 주었다.”며 아폴로의 활동을 칭찬했습니다. 결국 아폴로는 바오로의 유력한 협조자가 된 셈입니다.



- 글 허영엽 신부 | 그림 임의준 신부 -

# 복음묵상

## 너희가 말했다



너희가 말했다.  
내가 왕이라고  
너희가 말할 것이다.  
내가 죽을 것이라고  
너희는 말하게 될 것이다.  
내가 아무 소용없다고

“내가 그러하다고 너희가 말하고 있다.”  
(루카 22,70)

- 임의준 신부